

몰락한 추리소설 '권토중래' 이룰까

지난해 여름부터 내리막길 ... 신간도 격감



**추리소설 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상반기 베스트셀러
집계에서도 드러난다.
존 그리섬, 톰 클랜시,
스티븐 킹 등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로빈 쿡과
마이클 크라이튼도
50위권 밖이다.
추리소설의 몰락은
지난해 여름부터 조짐을
보이다 올해는 그야말로
바닥세다.**

추리소설이 침체된 가운데
여름시장을 겨냥한 책들이 다수
나와 있다.

추리소설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추리소설의 부진은 상반기 결산 베스트셀러에도 나타난다. 90년대 초반 상위권을 주름잡던 존 그리섬·톰 클랜시·스티븐 킹 등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로빈 쿡과 마이클 크라이튼이 50위권 밖에서 권토중래를 꿈꾼다. 추리소설의 몰락은 지난해 여름부터 조짐을 보이다가 올해는 그야말로 '바닥장세'. 전체 출판계의 불황과 맞물리고 비소설에 주도권을 내준 것이 작년의 상황이라면, 올 여름에는 회복국면에 들어선 소설바람도 못타고 있다.

판매저조의 악조건

바닥장세를 나타내는 또다른 지표는 신간의 격감. 추리물 신간이 전년 대비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이 서점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판매가 저조하니까 출판사에서 책을 내지 않고, 책이 안보이니까 추리물을 읽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을 지서적 홍보실 황선옥씨의 분석이다.

추리소설의 공백을 메운 것은 무협소설이다. 소설 신간의 3분의 1을 상회하며 판매량도 적지 않다. 레저잡지들도 추리소설 연계를 무협소설로 바꾸는 추세다. 더 화려하

고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는 삽화가 무협소설을 선호하는 하나의 요인.

독자들의 추리소설 기피현상을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일시적인 슬럼프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추리물로 분류되어 베스트셀러 목록을 차지했던 소설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추리적인 기법이 질게 담겼을 따름이지 법률소설, 가상전쟁소설, 의학소설에 더 가까웠다. 그나마 외국소설의 번역물 일색이고 국내작가의 작품은 좀처럼 찾기가 힘들다.

케이블 TV 영향도

추리소설이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서점·출판사·작가가 모두 동의하지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뚜렷한 해답이 없다.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우선 추리소설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첫째다. 추리소설을 단순한 납량물로 여겨 2류·3류로 취급하는 풍토가 지배적이다. 문학의 위엄은 진정한 문학성의 추구에서 나오는 것이지 엄숙주의를 고집한다고 지켜지지는 않는다. 동시대 세계문학의 최고봉을 구가하는 에코의 소설이 추리기법을 채용한 사실은 시사하는 바 크다.

한국추리작가협회 백휴 사무국장은 추리소설의 침체가 구조적인 데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한다. "추리소설을 쓰려는 사람이 없다. 경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없는데 누가 쓰겠는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보도 차단되어 있다. 한마디로 막막한 상황이다." 끔찍한 것에 대한 거부감과 유머가 없는 사회도 구조적 요인에 포함된다. 임어당은 일찍이 "유머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추리소설이 발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유머와 추리소설은 둘다 반전에 묘미가 있기 때문이다.

추리소설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때가 케이블 텔레비전의 개국과 일치하는 점도 공교롭다. 《출판잡지연구》 최근호도 CA-TV와 독서의 함수관계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CA-TV 정착이 독서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이 그것인데, 이런 논의가 확

장돼 추리소설과의 연관성을 짚어보는 연구가 요망된다.

7월 1일부터 발효된 지적재산권협약 역시 추리소설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 인기를 누리는 일부 외국작가의 작품은 여러 출판사에서 중복 출판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어렵게 되었다. 독자가 책을 읽어보기 전에는 '성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작품선택과 계약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추리소설의 수용정도가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능하는 척도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허구와 상상의 세계를 용인하는 지적인 아량, 작가에게 정보를 개방하고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의 재고, 스스로 변방에 있다는 자괴에서 벗어나 척박한 추리문학을 일구려는 개척자의 의지 등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추리문학도 만개할 것이다.

—최성일 기자

침체 속에 선보인 올 여름의 추리소설

국내 정상급 추리작가 다수 출간

그래도 여름은 추리소설의 계절이다. "홍년 든다고 농사를 짓지 않겠는가? 추리소설의 작황이 불안해도 좋은 작품을 엄선해 책으로 내는 것이 출판사의 임무지요." 신원문화사 윤석원 편집주간의 말이다. 비록 신간몰량이 많이 감소하기는 했어도 올 여름을 겨냥한 추리소설이 다수 선을 보이고 있다.

신원문화사는 국내 정상급의 추리작가 5명의 중·단편 추리소설집을 <미스터리 클럽> 시리즈로 내놓았다. 한국추리문학의 대표주자인 김성종의 <돌아온 사자>는 비정한 킬러의 세계에서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오는 심판의 칼날을 그린 표제작을 비롯, <소년의 꿈> <어느 창녀의 죽음> <회색의 벼랑> 등을 수록했다. 한국추리작가협회 회

장인 이상우의 <사랑의 알리바이>에는 사랑과 증오, 광기와 질투를 추리기법을 다룬 작품을 모았다. 이외에도 독자의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노원의 <적과의 동침>, 추리소설기법의 탈출이 추리소설의 발전이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정현웅의 <어느 여공의 죽음>, 현대사회의 비뚤어진 인간관계를 고발하는 하유상의 <30분의 미스터리>가 있다.

<샤넬 넘버 5>(해난터)는 추리소설 매니아 사이에서 '한국의 아가사 크리스티'로 불리는 임사라씨의 신작. 16권으로 기획된 <형사 쏘비>시리즈의 첫째권이다. 인간의 욕망과 욕망 앞에 선 위대한 사람들을 비교 관찰해 인간 본성애의 접근을 시도했다. <붉은 나비 혈점인>(천마)은 무협소설에 추

“당신들은 바로 유엔군이군!”

장갑차나 로켓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간혹 이런 말을 듣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저희들의 역할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스텔스 전폭기나 고성능 레이더 대신
다년간의 편집 경험과 노하우로 중무장한 저희는
쉬운 일보다는 까다롭고 급박한 일에
더 이골이 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는 언제라도 곧 달려가
육이오 때의 유엔군처럼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일러스트 · 김천정

▶ 사업내용

집 필 : 자서전 · 회고록 · 개인출판 및 문학 · 위인전 등
윤 문 : 번역물 및 아동물 등의 리라이팅
교 정 : 사전류 · 참고서류 · 한서 및 학술서적 등
편 집 : 백과사전 · 잡지 · 사보 등

▶ 기계설비

매킨토시 5대, 집필 · 교정용 컴퓨터 8대, 레이저 프린터 3대
스캐너 2대, 인화지 · 필름 출력기 1대.

〈최근 서점가에 선보인 추리소설들〉

	책 이름	지 은 이	펴 낸 곳	내 용
국내 추리 소설	돌아온 사자	김성중	신원문화사	미스터리클럽
	어느 여공의 죽음	정현웅	〃	〃
	사랑의 알리바이	이상우	〃	〃
	적과의 동침	노 원	〃	〃
	30분의 미스터리	하유상	〃	〃
	악령의 키스(1·2)	박이요	정음문화사	의학스릴러
	샤넬 넘버 5	임사라	해난터	형사 소비
	붉은 나비 혈결인	사마달	천마	추리무협
	안개가 걷히고 그 남자가 걸어왔다(상·하)	이종곤	제3문화사	보험추리
	푸른원숭이 19419	함승화	인간사랑	남북관계 가상
번역 추리 소설	SEX바이러스	파스칼 바롤리에	인간사랑	의학스릴러
	감염체	로빈 쿡	열림원	〃
	로즈 매더	스티븐 킹	고려원	공포소설
	아이스 바운드	딘 쿤츠	한뜻	〃
	블랙 예코	마이클 코넬리	시공사	범죄추리
	황새(상·하)	J.C. 그랑제	동아출판	〃
	뷰티(상·하)	브라이언 다마토	하서	아트 스킬러
	13	위너 로우 외	글사랑	미스터리 매거진
	월슨씨 이야기	마크 트웨인	세계문학	고전작가의 추리물
	미토콘드리아 이브	세나 히데야키	한뜻	'95일본 공포문학상

리기법을 가미한 독특한 구성으로 ‘추리무협’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작품이다. 저자 사마달은 금강·야설록·검궁인 등과 함께 한국창작무협의 제1세대 작가다.

번역물로는 로빈 쿡의 최신작과 도서출판 인간사랑의 근작이 눈에 띈다. 로빈 쿡의 거의 모든 작품을 도맡아 펴내고 있는 열림원에서 나온 《감염체》(1·2)는 21세기 최첨단 도시 뉴욕에서 발생한 원시적인 질병과의 싸움을 다루고 있다. 로빈 쿡 고정독자를 중심으로 서서히 반응이 오고 있다는 것이 출간 한달을 맞은 출판사의 자체평가다. 프랑스철학서 전문출판사 인간사랑도 두권 내고 잠시 접어두었던 소설선에 두권을 추가했다. 《SEX 바이러스》는 프랑스 작가 바롤리에의 처녀작으로 쿠바를 다녀온 프랑스 관광객의 몸에서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에 얽힌 이야기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소재의 추리물이 번역되었다. 영원히 젊고 아름답고 싶은 것은 본

능에 가까운 욕망이다. 《뷰티》(하서)는 성형수술을 소재로 서스펜스와 환상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92년 에드거상 신인상 수상작인 《블랙 예코》(시공사)는 유능한 수사관 해리 보슈가 주인공. <LA타임스> 경찰출입 기자였던 마이클 코넬리의 처녀작이다. 《13》(글사랑)은 심리적 불안감을 교묘하게 표현한 미스터리 고전을 모았다. ‘스릴러의 거장’ 히치콕 감독이 만든 《알프레드 히치콕 매거진》에 발표된 작품 가운데서 13편을 엄선해 수록했다.

—최성일 기자



三現編輯室

대표자 : 김문권

137-03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빌딩 5층)
전 화 : 549-6883~5 팩 스 : 515-1453
천리안 · 하이텔 : SAMYEUN